

# 조선시대 철릭과 남자 포류와의 상호관계

정혜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hulik and The Po for Man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Hye-Gyung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1999. 9. 7 접수)

### Abstract

The mutual relation dynamics between the chulik and the Po for man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hulik and the Po for man—symeui, danryeong, changeui, jikryeong—, the change of chulik, and the ideas that made this change.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The pattern of chulik and symeui is same, and they consist of bodice and skirt. In the 16th~18th century, the ratio of bodice and skirt's length of the chulik was 1 : 1.3~2 and it is effected by symeui. And symeui was effected by practical structure of the chulik.
2. The functions of the chulik were the underwear of danryeong and the upperwear as military uniform. And then the length of chulik was shorter than danryeong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sleeves were changed as large as danryeong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It is assumed that the changes were to be a functional underwear and to appear authority as upperwear.
3. Chulik as the underwear was hardly worn in the 17th centuries, and changeui was widely enjoyed instead of it. The reason of this change is that the pragmatism was emphasied in that period.
4. Chulik was widly worn instead of a court dress, until the mid of 17th century after war. It was effected by outer factor of the war. And jikryeong was widly worn instead of chulik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It shows that military officers wanted to appear authority.

**Key words:** chulik, symeui, danryeong, changeui, jikryeong; 철릭, 심의, 단령, 창의, 직령

### I. 서론

오늘날 복식사 연구의 방향은 단일 복식의 형태나 용도에 대한 정립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변화양상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복의 변화요

인으로는 정치 경제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아울러 사회 사상적인 내면적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동시대의 다른 복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식들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조선시대의 남자 袍制 가운데

철릭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袍는 유교사회에서 禮와 威儀를 갖추는 대표적인 복식물로서 사회의 내적 가치를 표현하고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한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종류의 포들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포들 간에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포류 중에서도 철릭은 독자적인 의복으로서 용복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받침옷이라는 종속적인 역할도 하여, 주변 복식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철릭이라는 하나의 의복이 다른 복식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영향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살펴봄으로써 철릭의 변화요인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포류 간의 상호관련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들 포류 간의 상호관계가 긴밀해지는 시기는, 외부의 힘에 의한 복식변화는 비교적 약화되고 주로 내적인 요인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복식이 발달되었던 조선시대 중기 이후가 된다. 이시기는 사회적으로 크게 예학과 실학이라는 두 사조가 지배하고 있었다. 예학은 16세기 중반부터 발전하여 17세기 전후에 이르기까지 예의 체계를 정비하면서 대두된 학풍으로, 복식에 있어서도 예를 갖춘 복식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17세기에 이르러 예학이 심화되면서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자 실학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실용과 편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남자 포제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철릭과 다른 포류와의 상호관계 속에도 이와 같은 시대사조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철릭을 중심으로 하여 동시대의 남자 포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철릭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상호영향의 내면에 시대 사조가 반영된 모습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철릭의 형태상에 변화를 가져온 深衣, 團領과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용도상에 변화를 가져온 團領, 直領, 縷衣와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보고된 조선시대의 유물들과 문헌 가운데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였다. 유물자료로는 16세기초 이후의 출토유물들 가운데<sup>1)</sup> 각 시대마다 철릭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고찰된 의복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철릭은 16세기초부터 김홍조(1461~1528), 김덕령(1567~1598), 박신용(1575~1627), 김덕원(1634~1704), 이황(1651~1724), 윤응열(1840~1911)의 유물 각 1점씩이다. 한편 문헌자료로 사용된 「악학궤범」은 1493년에 편찬된 것이지만, 관복도설에 수록된 「單帖裏」는 세종때(1418~1450) 회례연에 아악이 사용될 때의 복식으로서 15세기초 철릭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 II. 형태상에 있어서 철릭과 남자 포제의 상호관계

### 1. 심의와 철릭 구성의 상호관계

철릭은 형태상 심의와 마찬가지로 上衣와 下裳이 따로 마름질된 후 허리에서 이어진 포로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기본 袍制와는 다른 구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둘은 종종 비교되어왔다. 예를 들면 이금익(1736~1806)은 “우리 나라의 철릭제도는 심의와 가장 비슷하다”<sup>2)</sup>고 하였으며, 순조 34년(1833)에 좌의정 심상규는 철릭은 上衣와 下裳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소매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으니 대개 심의이면서 戎事에 나갈 수 있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sup>3)</sup>. 그리고 조선후기 저술로 추정되는 「심의설」에는 심의와 철릭의 구성을 비교하여 철릭의 裳폭은 이어져 있으므로 심의의 속임(續衿)과 같으나, 가장자리를 북봉(覆縫)하지 않은 것 즉 구변(綯邊)이 없는 것

1) 16세기초부터 19세기까지의 남자 철릭 유물로는 김홍조(1461~1528), 김덕령(1567~1598), 김위(1558~1618), 박신용(1575~1627), 김덕원(1634~1704), 이황(1651~1724), 윤응열(1840~1911) 등의 철릭이 보고된 바 있다.

2)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13 政教典故. “我東帖裏之制 最近於深衣”

3) 朝鮮王朝實錄 純祖 34年 4月 甲子.

〈표 1〉 심의의 衣·裳 길이와 길이비

연대	16c후반	17c전반	17c후반	18c	19c전반		19c후반		20c전반
자료	정구 「한강집」	김장생 「가례집람」	홍진중 심의유물	이 공 심의유물	홍회준 심의유물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박규수 「거가잡복고」	윤공현 심의유물	노상익 심의유물
衣 길이	2尺 1寸	2尺 1寸	51cm	48cm	54.5cm	1尺 1寸	1尺 8寸 3分	41cm	38cm
裳 길이	3尺 4寸	4尺 4寸	88cm	86cm	73.7cm	1尺 9寸	3尺 6寸 6分	75cm	73.5cm
의·상 길이비	1 : 1.54	1 : 2	1 : 1.7	1 : 1.8	1 : 1.35	1 : 1.73	1 : 2	1 : 1.83	1 : 1.96
척도	指尺	指尺	cm	cm	cm	布帛尺	指尺	cm	cm

(심의, 166 참고)

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sup>4)</sup>. 이처럼 철릭과 심의는 상의하상제라는 유사한 의복양식을 갖추었으면서도, 한족과 호족의 복식이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어 종종 그 상호 관련성은 무시되어왔다.

특히 철릭과 심의는 上衣와 下裳이 따로 마름질 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衣와 裳의 길이비는 두 복식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철릭의 의·상 길이비는 지금까지 연구의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이 의·상 길이비를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였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철릭과 심의의 衣·裳 길이 및 길이비를 비교함으로써, 두 복식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심의의 衣·裳 길이를 살펴보면, 「예기」에 衣 길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裳 길이는 '짧아도 피부가 보이지 않고 길어도 땅에 끌리지 않는다'고 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의·상 길이는 초기에는 신체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그 후 일반적으로 衣 길이는 2尺 2寸으로 정하고, 裳 길이는 복사빠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의·상 길이비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혹 裳 길이를 衣 길이에 대한 비례치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으므로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를 알 수 있는 문헌과 유물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심의의 衣 길이는 문헌상으로는 指尺으로 대략 2尺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며<sup>7)</sup>, 유물은 51cm에서 38cm로 점차 짧아지고 있다. 裳 길이는 그 치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문헌에서는 3尺 4寸~4尺 4寸, 유물상으로는 73.5~88cm에 이르며 19세기에 들어서 다소 짧아지는 경향이다. 즉 문헌상으로 대개 裳은 衣의 1.5~2배이며, 조선후기 유물상으로는 1.3~1.9배로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의·상 길이비는 1:1.3~2의 범위내에 속한다. 다만 19세기에 의상 길이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생활전반에 있어서 근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1]은 16세기초부터 김홍조(1461~1528), 김덕령(1567~1598), 박신용(1575~1627), 김덕원(1634~1704), 이황(1651~1724), 윤응열(1840~1911) 유물을 참고하여 衣·裳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의·상 길이는 16세기 후반이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즉 16세기 전반의 김홍조 철릭은 衣 길이가 길고 裳 길이가 짧은 반면 그 이후부터는 衣 길이는 짧고 裳 길이가 길어진다. 전자의 형태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악학궤범」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인손(1477~1543)의 철릭까지 확인된 바 있다<sup>8)</sup>. 그러나 16세기후반 임란기에 衣 길이는 짧아지면서 대신 裳 길이는 길어지게 되었으며, 그후 衣 길이는 지속적으로 짧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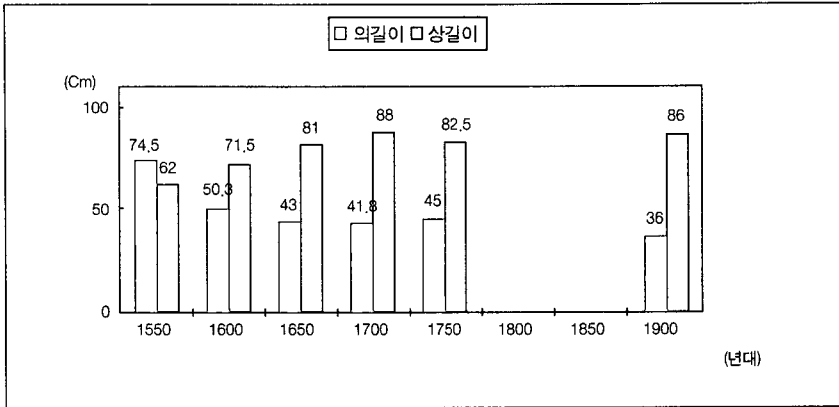
4) 저자미상, 「深衣說」.

5) 장인우, 조선시대 철릭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1호, 1977.

6) 「禮記」深衣. “.....短毋見膚 長毋被土.....”

7) <표 1>에서는 의·상 길이비를 살펴보기 위하여 衣 길이만 제시된 문헌은 수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17~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衣 길이가 2尺 1寸을 유지하였다.

8) 이은주, 16세기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 복식 제7권 제2호, 1999, 244쪽.



[그림 1] 철릭유물의 의·상 길이

이처럼 16세기말인 임란기에 衣 길이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종종 임란에 참전했던 김덕령 장군의 철릭을 두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타난 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시에 갑자기 의복 형태가 변화된다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며, 의복의 변화는 서서히 사회현상에 부응하며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임란전이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장인우는 이와 같이 上衣가 짧아지고 下裳이 길어진 이유중의 하나로 저고리의 길이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9)</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길이의 변화가 저고리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상의하상제인 심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16세기는 성리학 연구의 전성기로서 16세기 중반부터 예학이 점차 발전하여 禮의 형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상·제례에 사용되는 심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이다<sup>10)</sup>. 따라서 심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심의보다 하위의 복식으로 인식되어온 철릭은<sup>11)</sup>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마치 전통사회에서의 복식 변화가 상층사회에서 하층사회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9) 장인우, 앞의 글, 3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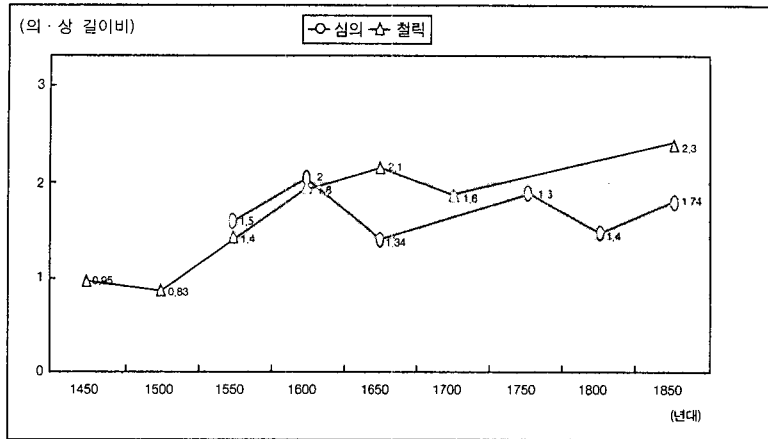
10) 정혜경, 「심의」, 경남대출판부, 1998, 44~46쪽.

이와같은 철릭 衣 길이의 변화는 의·상 길이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 2]는 철릭의 의·상 길이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동시대의 심의와 비교하여 본 것이다. 즉 심의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의·상 길이비가 1 : 1.3~2의 범주에 속한 반면, 철릭은 16~18세기에 심의와 유사한 비례치를 보인다. 이와같은 철릭 의·상 길이비의 변화는 16세기말에 나타난 衣 길이와 裳 길이의 변화와 더불어 전개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의·상길이비의 변화 역시 16세기 중반이후 예학기에 심의 구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당시 사회에서 숭상되었던 심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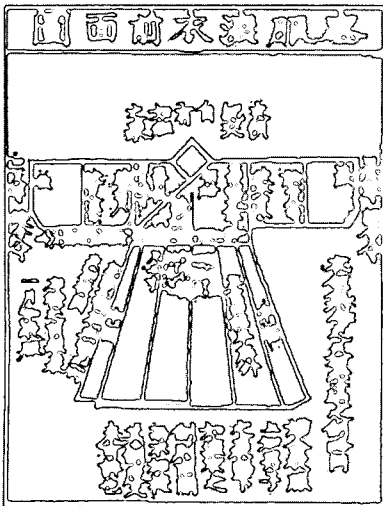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으로는 철릭이 심의에 미친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安珮(1569~1648)의 「家禮附費」에 수록된 深衣圖(그림 3)는 비슷한 시기인 金緯(1558~1618)의 철릭(그림 4)과 매우 유사하여 조선시대 철릭과 심의제의 상호관계를 가장 잘 보여 준다.

「가례부체」의 심의제는 喪服用으로 제작된 것으로

11) 심의가 철릭보다 상위의 복식으로 인식된 것은 다음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중종(1506~1544)이 편전에서 편복을 입는 것이 어떤가 하니 조광조가 아뢰기를 '의관을 단정히 하고 시선을 준엄하게 하라 하였으니 의관을 경홀히 해서는 안됩니다.....심의 같은 옷을 입으면 되지만 철릭같은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중종 14년 7월 戊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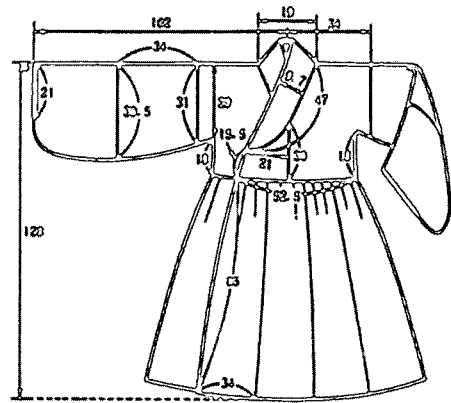
[그림 2] 철릭과 심의 의·상 길이비



[그림 3] 「가례부첩」의 심의도

로서, 「家禮」를 주로 하고 經傳과 先儒의 제설을 참작하였으나 당시의 시대 풍속에 알맞도록 보완한 것임을 저술동기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당시의 시대풍속에 맞추었다는 말은 당시의 포제 특히 철릭제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上衣의 나비가 좁으며, 쇄이 있고, 소매 형태와 상폭의 배열도 전통적인 심의제와는 다르고, 깃이 철릭의 제도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표 2>는 이 심의제와 철릭 유물의 치수를 각 부위별로 비교한 것이다. 이 두 복식에 있어서 깃,



[그림 4] 김위의 철릭(한국전통복식사 연구, 201)

쇄, 소매, 상폭의 배열, 의상비 등은 상호 관련이 있으며, 주로 철릭이 심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서 각 부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심의의 깃은 당시의 철릭과 같은 제도라는 기록으로 보아<sup>12)</sup> 일상복과 유사한 형태로서 철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통적인 심의<sup>13)</sup>의 깃은 고대부위가 좁으며 양 옷깃이 맞닿아 내려오는 대금형태로서 착용시에 여머입는 직령이었다. 그러나 철릭의 깃은 고대부위가 넓으며 쇄를 지나면서 깃을 교차시키는 交領의 형태를 지닌다.

12) 安玘, 家禮附贅. “衣領如今之天益上通之制畧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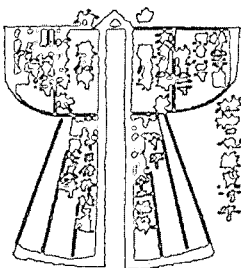
〈표 2〉안공의 심의와 김위의 철릭 구성 비교

의복명		심의	철릭	
衣	나비	1尺 4寸	31.5cm	
	길이	2尺 4寸	47cm	
셔	겉셔나비	1尺 2寸	27cm	
	안셔나비	6寸	없음	
소매	길이	2폭	2폭	
	진동	2尺	31cm	
	소매통	2尺 2寸	39.5cm	
	부리	1尺 4寸	21cm	
裳	쪽수	앞좌	4+반쪽	4
		앞우	2+반쪽	3
		뒤	4+반쪽×2	5
		합	12	12
	길이	복사배	82cm	
좌우 각 길의 나비:길이		1:1.6	1:1.5	
의·상 길이비		?	1:1.7	
척도		指尺	cm	
출처		안공(1569~1648) 「가례부체」	김위(1558~1618) 철릭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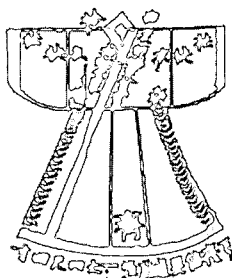
따라서 이 심의의 깃 모양 역시 셔이 있는 철릭과 같은 교령 양식이 된다는 의미이다.

上衣의 좌우 길은 각각 폭과 길이의 비가 전통적인 심의제에서는 1:1이지만, 이 심의제는 폭이 줄고 길이가 길어져 그 비례치가 1:1.6인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한편 김위의 철릭은 衣 좌우 각 길의

13) 전통적인 심의란 주자의 「가례」에 따른 심의제를 의미한다. 당시의 전통적인 심의제로는 신의경(1557~1648)의 「상례비요」에 수록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1] 심의의 앞면



[그림 2] 심의의 옷깃을 여민 모습

폭과 길이의 비가 1:1.5로 이 심의제와 비슷하다. 즉 저술동기에서 밝혔듯이 당시의 시대풍속에 맞추었다는 것은 곧 길의 폭을 줄여 간편하도록 보완하였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심의에는 셔이 있으며 안셔나비는 겉셔의 1/2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심의는 셔이 없으며 혹시 셔이 있는 경우에는 겉셔와 안셔이 동일하였다. 한편 철릭 유물들은 겉셔이 크며 안셔이 작거나 혹은 안셔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심의의 셔는 철릭의 셔 형태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 심의의 앞길 여밈의 길이는 뒷길 전체나비의 93%로 김위 철릭의 여밈 길이인 91%와 비슷하다.

심의의 소매는 2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동부위(2尺)가 소매통(2尺2寸)에 비해 2寸 짧아 거드량이 부위가 약간 들어간 破掖<sup>14)</sup> 형태이고, 소매부리(1尺4寸)는 좁다. 전통적인 심의의 경우에 진동부위는 衣의 길이나 소매통과 같은 길이이며, 파액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심의의 경우는 철릭의 소매와 같이 진동부위가 약간 파액된 두리소매의 초기 형태이다.

裳쪽의 배열에 있어서 전통적인 심의제는 앞길의 좌우에 상쪽이 동일하게 배열되지만 이 심의는 앞왼쪽에 4쪽, 앞오른쪽에 2쪽, 뒤에 4쪽이 있으며, 양 옆에 1쪽씩 앞, 뒤로 걸쳐 있어 상쪽의 배열이 특이하다. 그리고 안셔이 있는 곳에 상쪽이 연결되지 않은 점은 철릭의 상쪽 배열과 동일하다.

의·상 길이비는 심의의 경우 裳길이는 신체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정확한 비를 알 수 없으며, 저서에 수록된 그림상으로 볼 때는 대략 1:2 정도로 裳길이가 길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위의 철릭은 상의와 하상의 길이비가 1:1.7이며, 이 비례치는 이전에 비해 하상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례부체」의 심의제는 철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것으로서 두 포제간의 상호관련성이 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심의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형조차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의 변화의 내용은 대개의 경우 복고적 의지를 담고 있지만, 때로는 이

14) 파액이란 도포의 소매처럼 거드량이 아래를 등글게 꺾은 소매모양을 가리킨다.

와 같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서 전통과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유지하고 있다.

## 2. 단령과 철릭 형태의 상호관계

철릭은 한자어로 표기하였을 때 다양한 명칭이 있다. 帖裡 혹은 帖裏라는 명칭은 조선 초증기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안에 입는 옷 즉 단령의 받침옷으로서의 용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철릭이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형태는 자연히 단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주로 의복의 전체 길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철릭은 또 한편으로는 용복으로 사용되면서 단령의 영향으로 소매부위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철릭의 길이는 16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그 전반부는 짧은 반면, 후반부터는 길어진다. 장인우는 그 이유를 전자는 공복의 받침옷으로 사용된 경우이고, 후자는 용복으로 사용된 경우로 분류하여 의복의 역할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sup>15)</sup>. 문헌상으로도 연산 11년(1504)에 철릭의 길이를 담호나 단령에 비해 가장 짧게 만들고 그 위에 입은 담호의 주름은 단령 밖으로 드러나도록 한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sup>16)</sup>.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16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출토유물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선 김덕령의 생존시기(1567~1598)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16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 외에 철릭의 전체 길이가 짧아진 변화를 이끈주는 선조 원년(1567)에 조선에 온 중국사신의 복장에 영향을 받은 외부적 요인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17)</sup>.

철릭의 소매 역시 단령의 형태변화와 관계가 있다. 특히 철릭의 소매형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가장 특징적인 부위로 자주 언급되곤 하였다.

철릭의 소매는 초기에는 수구를 향하여 좁아지는 사선형의 통수에서 16세기말 김위의 소매는 진동부위가 약간 파액되고 소매통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하다가 곧이어 두리소매로 변화하였다. 먼저 통수의

경우 「악학계법」과 김홍조의 유물에서는 비교적 통이 넓은 형태이지만 임란기에 해당되는 김덕령의 유물에서는 그 통이 더욱 좁아져 용복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된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소매통이 서서히 넓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임란이후 철릭이 관복을 대신하여 백관의 용복으로 채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임란이 막 끝난 선조 30년(1598)에 예조에서는 중국 용복의 예를 들어 소매를 조금 넓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sup>18)</sup>. 비록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소매통의 넓이는 관심이 높은 현안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두리소매는 곧이어 17세기초 박신용(1575~1627)의 철릭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며, 18세기 말에 이르러 더욱 넓어져 용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박지원(1737~1850)의 「열하일기」에는 철릭의 소매가 넓고 한삼이 길어 말타기에 불편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sup>19)</sup> 또 순조 34년(1833)에는 용복인 철릭의 소매가 발등까지 늘어지는 불편한 점이 지적되었다<sup>20)</sup>. 그런데 이처럼 철릭의 소매가 넓어진 현상에 대하여 정조 17년(1792)에는 근래에 공복의 소매와 깃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부隸들의 철릭 소매도 따라서 넓어졌다고 하여, 단령 소매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sup>21)</sup>. 단령의 소매는 조선중기이후 그 넓이가 지나쳐 종종 32년(1537), 효종(8년(1657), 정조 17년(1793), 고종(1888)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를 저지하려는 령이 내려졌다<sup>22)</sup>. 이와같이 단령의 소매는 16세기초부터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릭의 소매 역시 16세기말에 김위의 철릭에서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철릭은 임란이 끝나고 관복제도가 정비된 이후에 주로 무관의 용복으로 사용되면서, 단령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의복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위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무관들의 욕구에 의해 소

15) 장인우, 앞의 글.

16) 朝鮮王朝實錄 燕山 11年 6月 戊寅.

17) 이은주, 위의 글, 244쪽.

18) 朝鮮王朝實錄 宣祖 30年 9월 癸巳.

19) 朴趾源,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20) 朝鮮王朝實錄 純祖 34年 4月 甲子.

21) 朝鮮王朝實錄 正祖 17年 10月 辛未.

22) 문광희, 한·중 단령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80쪽.

매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 Ⅲ. 용도상에 있어서 철릭과 남자 포제의 상호관계

#### 1. 常服의 받침옷으로서의 철릭과 창의

철릭의 용도는 상복의 받침옷과 용복 두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 상복의 받침옷으로 사용된 철릭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주로 조선초기부터 임란직후까지에 해당된다(<표 3>참고).

<표 3>에 의하면 철릭은 주로 왕실의 사여복으로서 단령 혹은 원령, 답화와 함께 하사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받침옷으로서의 철릭제도는 없어졌으며, 유형원(1622~1673)의 「반계수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에는 공복속에 철릭을 입기 때문에 속칭 고두철릭(固道貼裡)이라고 했다. 그것이 곧 군복이었다. 만일 불의에 복과 종을 치면 백관이 곧바로 목적지로 나아가 공복을 벗게 되면 갈아입지 않아도 바로 군복 차림이 된다. 이것은 대개 평시에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하려는 뜻이다.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금 생각으로는 공복속에 심의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sup>23)</sup>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17세기 초반까지는 철릭이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복속에 입던 철릭제도가 폐지된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저술된 「반계수록」에서 그 제도가 폐지된지 오래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두 시점 사이인 17세기 전반부에 철릭은 상복의 받침옷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상복제도에 변화가 심각하였으며, 그 와중에 상복 속에 함께 입던 철릭제도 변화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즉 임란이후 상복제도는 용복인 철릭이 대신하게 되었으며<sup>24)</sup> 그후 여러차례 冠帶를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인조25년(1647)에 가서야 정비되었

<표 3> 조선왕조실록에서 常服의 받침옷으로 사용된 철릭의 예

시대	의복명	용도
세종 26년	骨朶雲袍, 塔胡, 帖裏	왕의 常服
세종 128 오례	袞龍袍, 塔胡, 帖裏	왕의 絜습의
단종 00년	圓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단종 00년	圓領, 塔胡, 帖裏	魯山君이 김유에게 하사
단종 2년	圓領, 塔胡, 帖裏	守陵官에게 하사
단종 3년	團領, 塔胡, 帖裏	하사품 (중국사신)
단종 3년	團領, 帖裏	하사품 (중국사신)
세조 1년	團領, 帖裏	하사품 (중국사신)
세조 2년	圓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세조 3년	團領, 帖裏	왕실 하사품
세조 5년	團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세조 5년	團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세조 10년	團領,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세조 13년	團領, 塔胡,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예종 1년	團領, 帖裏	왕실 하사품
성종 00년	圓領, 塔胡,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1년	圓領,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7년	圓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성종 10년	圓領, 塔胡,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11년	團領, 塔胡,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11년	圓領,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12년	圓領, 塔胡,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14년	團領, 帖裏	하사품 (明 사신)
성종 24년	團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연산 5년	圓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연산 5년	團領, 塔胡, 帖裏	하사품 (曺邊使 이극균)
연산 9년	團領, 塔胡, 帖裏	왕실 하사품
연산 11년	團領, 塔胡, 帖裏	속에 입는 철릭을 가장 짧게함
연산 11년	團領, 塔胡, 帖裏	당하내관이 연향 및 거동시 착용
선조 28년	帖裏	속옷으로서의 철릭
선조 39년	團領, 塔胡, 帖裏	하사품(일본에 파견하는 무사)

다. 그간에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4)이라는 전쟁을 또다시 겪으면서 관복대신 용복을 착용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철릭은 표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관복과 함께 입던 받침옷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柳馨遠, 磻溪隨錄, 卷之二十五, 縉纁 上, 衣冠, 1769.

24) 朝鮮王朝實錄 宣祖 卅五年 4月 庚寅.



그후 관복속에 입던 철릭제도는 다시 복구되었으나 18세기 전반부에는 철릭을 대신하여 창의를 착용하는 풍속이 생겨났다. 영조 2년(1725)에 선왕때는 輪對하는 무신이 冠袍아래에 戒服을 입었으나 근래에는 관포아래에 白氈衣를 입는다는 기록이 있다<sup>25)</sup>. 이같은 내용은 정조 17년(1792)에도 공복안에 청색 창의를 입는다는 기록과<sup>26)</sup>, 순조 34년(1833) 역시 文陰官이 공복아래에 철릭대신 창의를 입었다는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다<sup>27)</sup>. 순조 34년에는 문음관의 공복속에 창의대신 철릭을 다시 입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창의를 보편화되었고 철릭보다 간편한 옷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창의를 소창의위 도포안에 입혀지는 포로서 이 역시 받침옷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철릭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이처럼 철릭을 대신하여 氈衣가 착용된 袍制의 변화는 실제적,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조선후기의 실학적 사조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 2. 戒服으로서의 철릭과 직령

용복으로서 철릭의 변화는 임란이후 전쟁의 후유증으로 관복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과, 또 한편으로는 조선후기에 무신들이 철릭을 입지 않고 직령을 착용하게 됨으로 역할을 상실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용복인 철릭이 단령을 대신하게 된 것은 임란이후부터 관복제도가 정비되는 17세기 중엽의 인조 25년(1647)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예를들면 선조 25년(1593)에 문무관의 관복대신 철릭을 사용하였으며<sup>29)</sup>, 선조 32년에는 문무백관이 착용한 철릭을 보고 중국군이 비웃었지만 관대를 갖출 여력이 없으므로 그대로 철릭을 착용한 기록이 있고<sup>30)</sup>,

선조 33년에는 백관의 喪服으로 단령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는 철릭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다<sup>31)</sup>.

이와같이 관복대신 용복인 철릭이 착용되는 역할의 변화는 17세기 전반부에 일어난 현상으로 철릭은 단령의 받침옷이라는 裏衣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表衣인 용복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용복으로서 철릭제도의 변화는 관복속에 함께 착용되었던 철릭제도의 변화와 상호 관련이 있다.

또다른 변화는 18세기 중반에 철릭이 용복으로서의 역할도 상실하고, 직령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즉 영조 19년(1742)에는 무신이 철릭의를 입지 않고 꼭 직령을 입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법을 세워 무장부터 이를 경계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다<sup>32)</sup>. 이로 보건데 당시에 직령을 착용하는 풍속이 이미 넓게 확산되었으며, 처음으로 경계하라는 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조대에 무신들이 직령을 착용하게 된 동기는 신분제도가 혼란해진 조선 후기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아니라, 위의를 중시한 유교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이런 풍속은 계속되어 정조 16년(1791)에 무관이 착용한 직령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지만 금지령은 내려지지 않았다<sup>33)</sup>. 즉 이때에 금지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 무변을 위하여 특별히 꼭진히 생각해 준 것일 뿐 아니라 영원히 준행하기 어려운 법을 지레 시행하고 싶지 않은데 뜻이 있었다'<sup>34)</sup>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기록들은 袍制의 혼란이 이미 현실 풍속을 거스릴 수 없을 정도로 고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에 곧 무장들이 범령을 준수

25) 朝鮮王朝實錄 英祖 2年 10月 丙寅.

26) 朝鮮王朝實錄 正祖 17年 10月 辛未.

27) 朝鮮王朝實錄 純祖 34年 4月 甲子.

28) 朝鮮王朝實錄 仁祖 25年 1月 癸卯.

29) 朝鮮王朝實錄 宣祖 수정실록 25年 4月 庚寅.

30) 朝鮮王朝實錄 宣祖 32年 1月 己酉.

31) 朝鮮王朝實錄 宣祖 33年 6月 己亥.

32) 朝鮮王朝實錄 英祖 19年 3月 戊辰.

33) 朝鮮王朝實錄 正祖 16年 1月 壬辰. "무늬있는 비단과 가채를 금지토록 한 것도 오히려 해이해질까 염려되어 거듭 엄하게 선척하였는데, 철릭에 관한 한가지 일을 더하면 또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무장이하 문벌이 있는 무관들이 先朝의 하교를 지키는 것은 괜찮겠지만 빈한한 자들에게까지 똑같이 금지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34) 朝鮮王朝實錄 正祖 16年 8月 己巳.

3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45, 道袍辨證說.

하여 직령을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있었으나 무관의 직령 착용은 영정조에 한정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전반부터 관복의 받침옷으로서의 철릭은 창의를 대신하였으며, 18세기 중반에 용복으로서의 철릭은 직령이 대신하여 그 역할상이 약화되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언제부터가 士庶의 포가 철릭에서 직령으로, 직령에서도 포로 변화하였다'는 기록 역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sup>2)</sup>.

#### IV. 결 론

본연구는 철릭과 동시대에 착용된 남자 포류들 가운데 상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심의, 단령, 창의, 직령과의 상호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 결과 철릭과 다른 포류와의 관계속에서 형태상 혹은 용도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철릭의 변화는 외적인 시대 배경이나 내적인 시대사조에 따라 나타났으며, 그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철릭과 심의는 구성상 동일한 上衣下裳制로서 조선시대에 文武를 대표하는 복식으로 사용되면서 상호 형태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심의 구성은 16세기 이후 예학이 발전하면서 조선시대 유학자들간에 심도 깊은 논의에 의해 체계를 갖추었으며, 철릭보다 상위의 복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철릭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철릭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주요 관심사가 되는 의·상 길이비는 16~18세기에 이르면 심의의 비례치와 유사해졌다.

그리고 철릭의 형태 역시 심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17세기 초반 「가례부체」의 심의제는 첩리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심의제에서는 깃, 길의 폭, 섶, 소매 형태, 상폭의 배열 등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예복으로 사용된 심의에 생활복으로 사용된 철릭의 합리적인 구성이 적용된 것이다.

2. 철릭은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면서 옷길이에 있어서 단령과 관계가 있으며, 문무관의 용복으로 사용되면서 소매 형태에 있어서 단령의 영향을

받았다.

철릭의 옷길이는 유물을 통해 볼 때 16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길이는 짧다. 이러한 현상은 철릭이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된 역할상에 의한 것이기도 하며, 문헌상으로도 연산 11년(1504)에 철릭의 길이를 단령보다 짧게 한다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철릭의 소매형태는 사선형의 통수가 기본이었지만 16세기말에는 진동부위가 과액되기 시작하여 17세기초에는 두리소매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임란이후 용복으로서 관복을 대신하여 사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었으며, 16세기초부터 단령의 소매가 넓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18세기말에 이르러 철릭의 소매는 용복으로서의 기능성을 상실할 정도로 넓어졌다. 이 역시 정조 17년(1792)의 기록에 의하면 단령의 소매가 넓어진 것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문관이 착용하는 단령과 마찬가지로 위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무관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3. 常服의 받침옷으로 사용되던 철릭제도는 17세기 전반부에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임란이후 관복제도가 폐지되면서 철릭도 더불어 폐지되고, 용복인 表衣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후 단령의 받침옷으로서의 철릭제도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18세기 초반부터는 창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으며, 19세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고착되어 철릭제도는 오히려 번거롭게 여겨졌다. 따라서 철릭을 대신하여 창의가 착용된 袍制의 변화는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조선후기의 실학적 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용복의 용도로 사용되던 철릭은 임란이후 관복제도가 정비되는 17세기 중엽까지 단령을 대신하여 관복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신분제도가 혼란해진 조선후기에 철릭은 용복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직령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정조대인 18세기 후반에 한정된 현상이지만 사회의 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위의를 중시한 유교사회의 특징을 나타내준다.

## 참고문헌

- 金長生, 家禮輯覽, 1599.
- 朴趾源, 熱河日記.
- 朴珪壽, 朴珪壽全集, 서울:韓國近代思想叢書, 1978.
-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1808.
- 申義慶, 喪禮備要, 1620~1621.
- 安 玗, 家禮附贅, 1628.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孫敬子·金英淑 共編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編Ⅲ, 서울:敎文社, 1982.
- 鄭 述, 寒岡集, 1610.
- 鄭 焯, 家禮彙通.  
深衣說.  
樂學軌範.  
禮記.  
朝鮮王朝實錄.
- 고광림, 한국의 관복, 화성사, 1990.
- 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 고복남,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一潮閣, 1986.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2천년, 신유, 1997.
- 김미자, 직령에 관한 연구, 복식 5, 219-235, 1981.
- 문광희, 한·중 단령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 문명희, 帖裏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 영주시 편,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1998.
- 은양민속박물관 편,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은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1989.
- 이은주, 철릭의 명칭에 관한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2(3), 1988.  
    ,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3(4), 1989.  
    ,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김홍조(1461~1528) 분묘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2), 242-256, 1999.
- 임명미, 몽고복식, 경춘사, 1992.
- 장인우, 조선시대 철릭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89-399, 1997.
- 정혜경, 심의,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충북대학교박물관 편,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考, 조사보고, 제8책, 1983.
- 최경순, 英·正時代 服飾變遷에 關한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6.
- 홍나영,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이황묘 출토 첩리와 창의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3), 527-537, 1996.